

“신입생 교복 신청 받고 입찰해야”

공정위, 제도개선 권고 학교주관구매제 발생 부작용 줄이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하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학교가 신입생들의 신청을 받아 구매량을 확정된 뒤 입찰을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학교주관구매제 실시 이후 입찰 탈락 업체들이 학생들에게 개별 구매를 부추기는 사업 방해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사업자간 사업활동방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학생교복 시장에 대한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교육부와 실무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는 브랜드사에 의한 고가 교복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학교가 규격 입찰을 통해 적합사업자를 1차적으로 선별하고, 이 업체들 중 가격 입찰을 통해 최저가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면 그 해에는 이 사업자가 동복과 하복을 모두 공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학생이 교복을 물려입거나 교복 장터를 활용할 경우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입찰에 탈락한 사업자들은 이 점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사업 방해 행위를 해왔다. 신입생들에게 ‘교복 물려입기’를 신청하도록 한 뒤 자사 교복을 개별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학교가 신입생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학교주관 구매 물량을 확정하고 입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찰 단계에서 학교 주관 구매 물량이 확정되면 입찰 탈락 사업자가 신입생에게 개별 구매를 부추길 여지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신입생의 교복 착용을 5~6월 하복부터 늦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신입생 배정 일정(중학교 2월초, 고등학교 12월) 하에서는 입찰 실시와 교복 제작에 탈락한 사업자들은 이 점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사업 방해 행위를 해왔다. 신입생들에게 ‘교복 물려입기’를 신청하도록 한 뒤 자사 교복을 개별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장기적으로 교복표준디자인제를 통해 학생 교복 시

장에 경쟁 원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교복을 10~20여개의 디자인으로 표준화해 제시해 각 학교에서 적합한 교복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국 공립학교의 경우 교복디자인이 표준화돼 있어 소비자가 슈퍼마켓, 온라인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일본도 표준화된 교복을 교복전문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며 “학교주관구매제 하에서의 수요점 문제를 해소해 교복 사업자의 건전한 발전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소비자는 일반소매점을 통해 다양한 가격 및 품질의 교복 제품을 상시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주기자

전주시, 독서마라톤대회 진행

9월 30일까지

전주시가 시민들이 일정기간 동안 읽은 책의 양을 거리로 환산해 목표한 거리를 완주할 시 기념증서를 수여하는 독서마라톤대회를 연다. 전주시립도서관은 2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214일 동안 2016년 제5회 책 읽는 전주, 독서마라톤 대회를 진행한다. 독서마라톤은 독서와 마라톤을 접목시켜 책 1쪽을 1m로 환산해 진행하는 대회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3km(3000쪽), 5km(5000쪽), 10km(1만쪽), 20km(하프코스, 2만쪽), 42.195km(풀코스, 4만2195쪽) 등 5가지 종목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독서량으로 완주하는 경기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이상 전주시

민이며, 독서마라톤 홈페이지(<http://독서마라톤.kr>) 독서일지 코너에 도서명과 저자, 출판사, 읽은 쪽수, 독서감상평(초등학교 30자 이상, 중학생 이상 50자 이상) 등을 기록하면 된다. 목표한 종목을 완주한 시민에게는 독서마라톤 완주증이 주어진다. 완주증을 받은 시민들에게는 내년부터 시립도서관 도서 대출권수가 1인 5권에서 최대 10권으로 확대되고, 독후감 공유하기 코너의 우수 독후감은 ‘전주시민 글 모음집’에 수록될 예정이다. 대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대회 운영기간 중 언제든지 전주시 독서마라톤 홈페이지(<http://독서마라톤.kr>)에서 회원 가입 후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완산도서관(063-230-181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기자

전주시, 맞춤형 건강관리 추진

올해 50개 경로당 대상 양·한방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한다. 전주시보건소는 오는 6월말까지 호암경로당 등 관내 5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기초검진 및 보건교육, 진료·건강상담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100세 시대를 맞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 통합 건강증진팀은 사업대상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기초검진 측정과 자기혈관 숫자알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에 대한 자가 인지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걷기 동아리 등을 조직해 어르신들이 걷기를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심검체 먹기 프로그램 등도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처음 실시된 ‘100세 행복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총 25,157명의 어르신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사업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은 갈수록 노인비중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어르신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유용한 프로그램”이라며 “어르신 건강관리 정책들을 발굴, 적극 추진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겨울잠 깬 참개구리

경칩을 사흘 앞둔 2일 전남 함평군 신광면 양사피초등학교에서 겨울잠을 깬 참개구리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개구리를 직접 민져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회사자금 4억여원 빼돌린 여직원 징역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2일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이모(44·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김제시의 한 회사에 경리로 근무하면서 모두 464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4억4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회사에서 빼돌린 자금 중 일

부 금액만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법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 대부분은 변제했거나 변제하고 있는 중인 점, 자수한 뒤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기자

영화관 옆좌석 관객 카메라 훔친 女 입건

덕진경찰서는 영화관서 옆좌석에 놓인 고급 카메라를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8일 밤 11시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극장서 영화를 관람하던 중 옆 좌석의 B(47)씨가 놓고 간 카메라(80만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노영기자

친구 신용카드 훔친 20대 딸미

익산경찰서는 2일 친구의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8일 새벽 6시에 익산시 창인동 한 원룸 주차장에 주차한 친구 A씨의 스포티지 차량 문을 열고 친구의 신용카드 한 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A씨 등 친구 3명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A씨가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을 알고 신용카드를 훔쳐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노영기자

군산서 맨홀 작업 중 인부 2명 유독가스 중독

2일 오전 9시26분께 군산시 대야면 농협유수소 앞 맨홀 안에서 작업을 하던 전모(50)씨 등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이날 노후 상수도관 교체 작업을 하던 중 관로 속에 남아 있던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작업 인부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노영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